

Vol. 209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특집 선거에 임하는 기독인의 자세
선교 러시아 당대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시사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반대 이유
기관탐방 한울섬김교회와 CBSI
설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건강 약 복용 이야기

2016
04

춘천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010.5115.8731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부르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1,2)

믿음이 연약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을 보는관객이 마치 나에게 내미는 손처럼 간접 체험할수 있게한 구도입니다.
이 그림은 특히 미국등 외국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SNS를 통해 접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것 같은 절망상태에서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고 소망과 새 힘을 얻었다고 작가에 감사한다고 전합니다.
어떤이는 물에 빠진 절망에서, 어떤이는 실패와 좌절에서,
어떤이는 소명으로 내미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손을 잡길 소원을 담았습니다.

작가 김용성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Editor's Note

4년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의 일꾼을 새로 뽑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점점 낮아지는 투표 참여율이 말해주듯이 국민 대다수가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조차 스스로 닫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가들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만 상처를 받고 가슴을 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꿈꾸며 기대해야 한다. 예수님은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마9:16)라고 말씀하셨다. 즉 대충 땜질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요즘은 헌옷을 기어 입는 사람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과거에 헌옷을 기어 입고 또 기어 입던 시절을 사셨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헝겊을 덧대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새 옷을 지어 입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오래 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약해서 발효가 시작되는 새 포도주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리곤 했다.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하는 음식에 맞게 새롭고, 신축성이 있으며, 유연하고, 잘 적응하는 새로운 가죽부대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진정한 변화는 아직 멀다 하여도 변화를 꿈꾸고 기대하며 나로부터, 내 지역으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선거에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달 알파고의 열풍이 보여주듯이 앞으로의 세대는 산업혁명 그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제조, 금융, 유통, 의료산업과 그로 인한 고용 및 소비구조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무인자동차의 상용화, 원격진료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된다. 이렇게 숨 가쁘게 변화되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 정말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변화를 거부하는 것 같이 보인다. 과거에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이끄는 기수역할을 했다. 그 시대가 바로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에 비해 교회의 변화가 뒤처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변화하는 세상에 교회는 변화를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낡은 가죽부대처럼 신축성도 떨어지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적응능력도 떨어지게 되면 변화하는 세상을 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교회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편집장 최영조

Contents

2016. 4. Vol. 209


012


046



034

1 커버스토리

3 에디터 노트

5 쉼 한 편

6 4월 캘린더

8 칼럼

10 특집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12 선교
러시아 당대 복음화

16 통일
필리핀 쥬빌리 아카데미

21 종교개혁 ⑤
마르틴 루터

24 시사
세계 이슬람 경제 포럼 유치 반대

27 예수안에서 본 예술

29 기관탐방
한울섬김교회와 CBSI

33 예향/만평

34 설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36 예수의 미소

38 영화이야기
The 33

40 건강이야기
약 복용 이야기

43 사설
만물이 소생하는 봄

44 알려드려요

46 3월을 돌아보며

49 음악이야기

52 후원자 명단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풀꽃

4
2016

◆ 성시화 기도제목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주의 존귀 주의 거룩 주의 영광 우릴 통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이뤄주소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SUNDAY	MONDAY	TUESDAY
3 ·기드온순방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석사감리교회	**4** · 춘천장로연합회 월요기도회 오전 6시 30분 세상을비추는성결교회 · CCC 초중급 LTC ~6일 오전 7시~10시, 춘천 CCC회관	**5** ·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강습회 개강 ~12주간 오전 10시 /저녁 7시 춘천지회 사무실 · 통일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10	**11** · IVF Scriptur Engagement ~14일, 성주하늘목장 · 쥬빌리 52차 춘천모임 오후 7시 15분, 주향교회	**12** · 춘천성시지도자모임 오전 7시, 옛날맛해장국 · 통일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17 ·장로연합회 순방헌신예배 오후 2시, 명성감리교회	**18** · 4/14 지도자세미나 오전 10시, 순복음춘천교회 · JDM 한국간사수련회 수담안 ~22일, 제주도 · IVF ~22일, 춘천지역 학사방문 · CCC 전국간사 수련회 ~21일, 횡성 윌리휠리파크	**19** · 통일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24 ·홀리클럽 제84차 정기기도회 오후 2시, 양지노인마을 · CCC 세계기도의날 강원지역모임 ~25일, 삼척참좋은교회	**25** · GBT 비전기도회 오후 7시, 지부사무실 · 통일 광장 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 무대	**26** · 어린이전도협회 어린이날파티 전도강습회 오전 10시, 오후 7시 춘천지회사무실 · 통일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에스겔36장 25~27절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 기드온 조찬기도회 매주 금 오전 7시, 미가식당	**2** · GBT 선교학교 개강 춘천우리교회
6 ·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 2시 · IVF 강원지역 연합간사모임 원주 IVF회관 · 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7** · JDM 부활축전 오후 6시30분, 꿈마루청소년수련관 · CCC 연합채플 오후 7시20분, 춘천CCC회관	**8**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저녁 8시** **순복음춘천교회**	**9** · GBT 선교를 돕는 재능기부 오전 10시, 조선커피
13 · 투표일	**14** · JDM 춘천지구 캠퍼스채플 매주 목, 저녁 7시	**15** ·제17차 기드온중부지역대회 ~17일 치악명성수양관	**16**
20	**21**	**22** · 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23**
27	**28**	**29**	**30** · CCC 여호수아기도회 평창휘닉스파크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

거센 장맛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속이 쓰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도 샘솟는 비는 여전히 쉴새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벌써 며칠 째 쏟아지고 있건만 여름 장맛비는 조금도 지칠 줄을 몰랐다.

검게 내려앉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상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새벽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검은 하늘에 어린 시절의 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모자원이라는 아주 초라한 곳에서 살았다.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읽고 나면 바로 다음 사람이 기도를 하고 끝마무리를 지었다.

그날은 누나가 기도 할 차례였다. 어머니와 나는 누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누나의 기도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누군가 먼저 '킥' 하고 웃자 마침내 모두가 참을 수 없어서 방을 뒹굴면서 웃었다.

바로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순간, 터져 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이런 외침이 쏟아져 나왔다.

"주님! 제가 언제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양교회 이원호담임목사님의 간증집 '아! 겐그레야' 의 프롤로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 그동안 고단했던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계실 이원호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오랜시간 방황의 늪에서 유리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온지 37년, 그동안 혈기많고 거친 성격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싸워왔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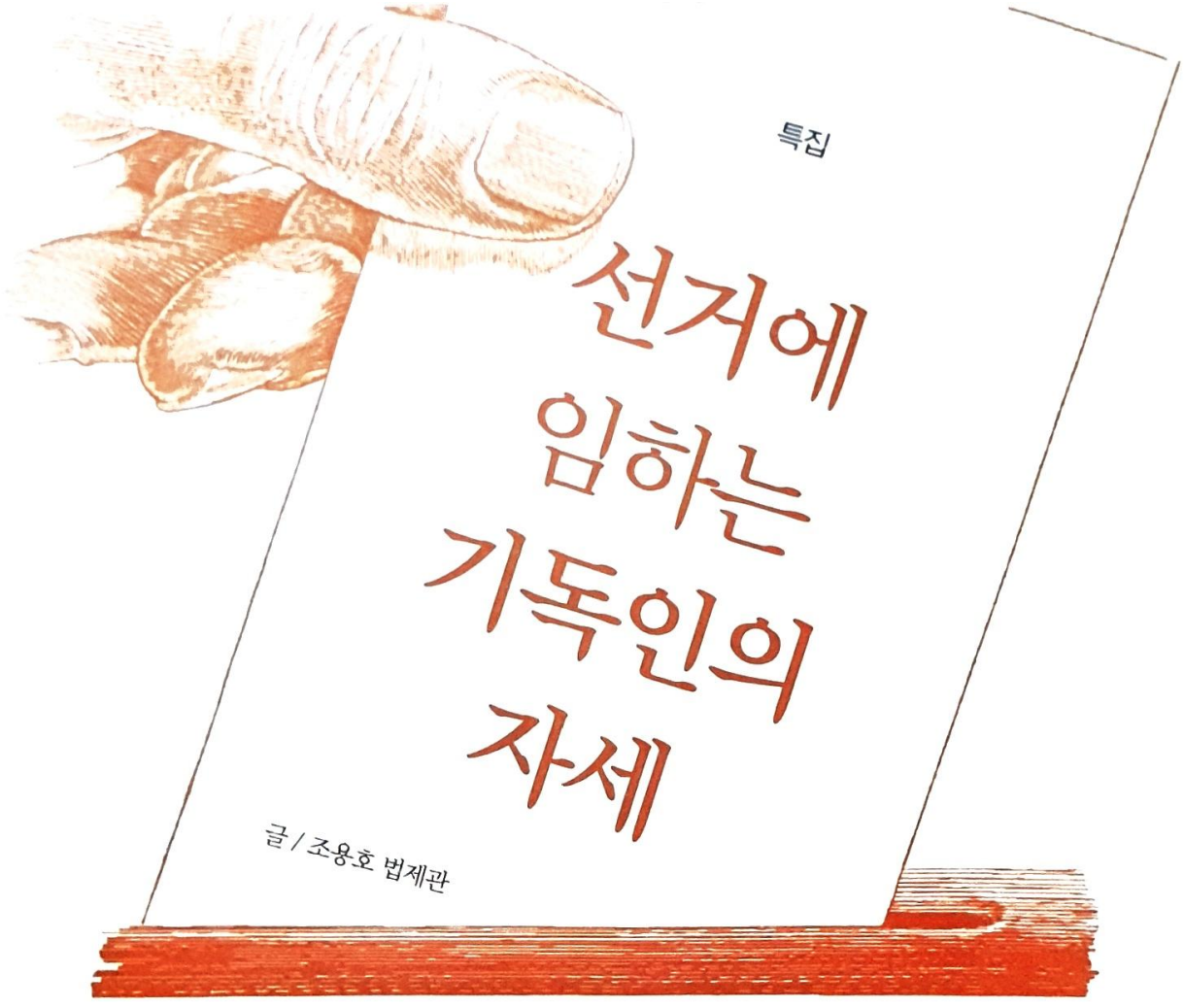
그러나 주님께서 세월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주심을 함께 보아왔던 소양교회 성도님들과 지내온지 30여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아직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상황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답답함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많은 사역과 거룩한 명예를 이제는 뒤로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모님과 두 자녀와 가족들, 소양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이원호목사님을 그리며 오늘의 안타까움을 대신합니다.



소양성결교회 담임목사 故 이 원 호

·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총괄 부총재
· 경찰청 교경 중앙위원
· 성결교 부흥사회 대표회장 역임
·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이사 역임
·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100주년 부흥분과 위원장
· 강원CBC 춘천운영이사장
· 강원CBS 사옥건축위원회실행위원장

글 / 변춘자 전도사(소양성결교회)



특집

선거에 임하는 기독인의 자세

글 / 조용호 법제관

앞으로 3주후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거는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법을 만드는 사명을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할지를 결정하고, 내가 부과할 세금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지정해주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지난 1월, 젊은 청년이 모여 운영하던 수백억원의 온라인 자동차 경매회사가 사업을 접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온라인 자동차경매회사에 대하여 일반 경매장과 똑같이 땅을 사서 갖추라고 요구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뿐인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인터넷은행, 우버택시의 도입, 연금수준을 결정하고, 자녀가 다녀야 할 학교를 추첨으로 선정하느냐 시험으로 선정하느냐를 결정하며,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볼지 연명치료의 대상으로 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은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불과 20년전 14대, 15대에는 1천여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의원발의 법안이 18대에 1만 3천, 19대에는 국회 1만 5천건이 넘어섰습니다. 가히 "입법홍수"의 시대입니다. 메르스 사태,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등 사건이 발생하거나 면세점 불합리 등이 공론화되면 과거에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던 것이 이제는

국회에서 먼저 관련 대책법이 수십건씩 발의되곤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정치가 겪는 혼란의 배경을 보면, 과거에는 대통령부터 아래로 동사무소 직원까지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행정부가 우리의 생활에 관여하였다면, 현재는 우리가 선택한 300명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한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과 인간을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할지, 예산은 어떻게 써야할지, 정부는 어떻게 감독하여야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겉으로는 혼란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국회에서 법률안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노라면 오히려 혼란을 줄이고, 토론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가는데 있어 국회의원이 방해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지 우리 사회의 발전은 국회의원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참으로 우리 시대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독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할까?

선거는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전국에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300명이 모여서 국회를 이루고 국가를 방위하고, 우리의 자유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의식은 마치 목사안수식처럼, 선교사 파송식처럼 신성하고 고귀한 행사입니다. 목사안수와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그 선출 책임을 맡은 교단이나 교회지도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파송지에 가서 목양을 잘하고 교인을 잘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청자 가운데 아무나 선정해서 안수하고 파송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인간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지, 파송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파송 받았을 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자기 목적이 아니라 진정 부름받은 뜻을 행하는 사랑과 인격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은 조용히 파송할 선교사를 결정하는 교단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살펴보고 심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법을 만들고, 국가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며, 정부를 감독하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국회로 파송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시간. 파송될 선교사를 선정하는데 어찌 교단지도자가 쉽게 말하고 감정에 따라 휩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리오. 어쩌면 국회의원 선거는 자기성찰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선거결과는 곧 자기의 모습이요 자기의 수준이니까요. 선거구호에 속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로 파송될 사람을 파송 선교사를 구하는 교단지도자처럼 진지하게 생각하기! 선거를 앞 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러시아(Russia) 당대 복음화를 위한 시대에!

동서 길이가 1만(10,000km)킬로미터인 거대한 나라, 우리나라와는 6시간 시차이지만, 러시아 내에서 시차가 11시간인 나라! 영하 40도의 추위가 아니면 추위라 말하지 말라는 나라! 러시아(Russia)!

대제국이라 일컫기에 가장 적절한 나라인 러시아(Russia)를 끌어안고, 한 번 뿐인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사역하고 있는 조동석선교사(총신신대원, GMS, GP(Global Partnership)소속선교사)를 러시아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과의 한국 방문 기간 중에 만나 보았습니다.



곽수희 선교사, 조동석 선교사

Q 선교사님은 러시아에서 몇 년째 사역하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지요?

1992년 10월에 선교지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24년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초기에는 모스크바시 마트베엡스끼야 교회를 개척하여 청소년 캠프사역을 중심으로 주일학교교사 육성사역과 지방대학 순회전도사역을 했지요. 그 후 현지 복음주의 교단 총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 지도자 육성사역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러시아복음주의신학교를 설립하여 지도자 육성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방문한 목회자들과 한국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인가요?

러시아복음주의 신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한 졸업생 목회자들입니다. 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많은 사역을 탐방하고, 직접 참석하여 그 동안의 배운 학문과 지식들, 한국교회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목회자들의 목회실제를 보고 들으므로 도전도 받고, 비전을 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국제금주학교(대표:김도형목사)에서 훈련과정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과 중독자 재활교육을 수료하고, 한국의 10여개 교회와 기관, 신학대학을 탐방하였습니다.



▲ 총신 (양지캠퍼스) 기념비에서

Q 지도자 육성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러시아는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목회자가 드문 상황입니다. 러시아 선교 10여년 쯤 되었을 때 현지 복음주의 교단 총회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 지도자 육성사역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러시아복음주의 신학교를 설립하여 정식으로 개교하고 2015년 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고, 신학교내에 선교중앙교회를 통하여 주일예배와 매일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행정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많은 어려운 여건이 많은 가운데서도 전원 기숙사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한 경건생활과 학문적 지식을 겸비한 목회자를 배출하는 사역입니다. 러시아 당대복음화를 외치면서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지도자육성 사역을 통하여 전 러시아 연방에 교회를 세우므로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러시아 복음주의 신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러시아를 비롯하여 선교지에서의 신학교육이란 한국처럼 3년이나 4년씩 장기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4년 8학기제를 운영하여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고, 새벽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경건생활을 훈련하도록 하고, 저녁에도 8시에 매일 기도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기도생활을 익혀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복음주의 신학교



▲ 목사 안수식



▲ 러시아복음주의 신학교 8회 졸업식 후 학교 앞에서



▲ 부여금주학교



▲ 한국방문 중 졸업생들과 함께

Q 지도자 육성사역을 통한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신가요?

일 만(10,000)교회 개척사역입니다. 광대한 나라 러시아를 우리 시대에 복음화 하기 위해 러시아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통해 러시아 지역 전 영역에 일 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비전을 품고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러시아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면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에 이르도록 세계 복음화의 큰 몫을 감당하는 영적 아브라함으로 서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Q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러시아는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적 잠재력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89개의 연방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이며, 130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다의 연방국가이며, 21개의 자치공화국이 있고, 49개의 자치주, 1개의 유대인 자치주가 있고, 10개의 자치관구가 있으며, 6개의 지방, 2개의 특별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영적으로 볼모지였지만 90년 소련 붕괴이후 개방되어 복음의 황금어장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귀한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군사 과학기술의 대국이요, 문화 예술의 본 고장입니다.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같은 음악가를 배출하고, 톨스토이와 토스트엡프스키 같은 대문호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Q 선교사님은 언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었나요? 또한 선교사로 헌신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중학교 2학년 수련회 기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의 부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다른 나라를 위해 지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들었고, 그 이후로 선교사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92년 선교지로 부임 한 후 오늘까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Q 선교지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신가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2013년 11월 26일 코미공화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나 장파열로 인해 세 번의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일입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세 차례의 수술로 회복이 어려워 비행기로 응급 수송하여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아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선교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Q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러시아 당대복음화를 이끌어갈 사명자를 일으켜주시고, 신학교의 지도자육성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개척사역의 후원자들을 일으켜주시며, 졸업생 목회자들이 성령충만하여 교회개척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 이연희기자 skyphone119@daum.net

필리핀 쥬빌리아카데미



Q 어떻게(왜) 선교사가 되셨나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불교신자이셨는데 어머니의 지병이 깊어 치료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옆집 누나의 전도로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에 가본 어머니께서 그날 그 오래된 지병을 치료받고 아버지를 제외한 3형제는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고 아들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아파 대학과 취업을 할 수 없어 근심하고 있을 때 청년부 특별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제 나이 20살이 되는 봄, 여의도광장에서 있었던 대중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북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양 형제산구역 형산리 라는 동네를 말씀해주시면서 네가 갈 곳이니 준비하거라는 음성을 주셨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오직 북한과 세계선교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Q 필리핀을 선교지로 마음에 품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2학년을 마칠 무렵 영어가 너무 부족했던 저에게 필리핀에서 영어공부와 학업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중국어를 하고 있던 터라 영어까지 공부한 후 본격적인 북한사역에 뛰어들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북한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통일이 되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이곳 필리핀에서 준비하길 원한다. 난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처음엔 필리핀에서 무슨 통일 일꾼들을 준비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994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매년 들어가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선배 선교사님의 센타(장춘)에서 귀한 사역들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필리핀을 향한 그리고 통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필리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탈북자 대안학교(한꿈학교)를 운영하셨던 선배 목사님이신 김성원 목사님에게 요청하여 북한친구들이 필리핀으로 오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며 신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필리핀에서 하고 계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페이스북'에서 나환자마을 '소록유니'를 섬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소록도를 연상시킵니다.

필리핀에 처음 와서는 World Disciples Church를 개척했습니다. 바기오라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7시간 떨어져있는 해발 1,600m에 자리 잡은 산악도시이자 교육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정문 앞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핀 현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3시간씩 예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현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신학을 졸업하게 된 제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저는 마닐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닐라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장로님께서 눈물로 만들어 놓은 소록유니 나환자 정착마을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치료되어진 나환자들을 이주시켜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열악하여 다시 나병이 재발하기도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저희 북한친구들과 함께 예배, 게임 그리고 마을에 길을 깔아주고, 페인트며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 있는 80여명의 가족들과 매번 뜨겁게 예배하는 것과 손에 손을 잡고 운동회를 하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듯이 탈북한 청년들이 이곳에 있는 나병을 앓았던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손을 잡고, 등에 업히고,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사의 고비를 넘긴 우리 북한청년들을 통해 열방의 소외된 영혼들을 품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필리핀에서 '통일'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필리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필리핀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통일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일만을 준비하는 사역자는 아닙니다. 통일이후를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은 통일시대를 살아갈 통일세대들을 준비하는 사역에 너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느낍니다.

Q 통일 선교에 있어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관심은 한국사회 내의 어떤 공동체보다 각별한 것 같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한인 교회 등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째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른 나라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반면 우리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운동하고 그러게 하다보면 그곳에서 통일이 시작되어집니다. 한인사회에서 무엇을 도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탈북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탈북자들은 쉽게 통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선교사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통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0~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가슴에 주시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바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복음(예수님)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북한이 그렇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북한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성경책, 교회 등의 단어를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든 소수의 권력층에 대한 심판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북 땅의 2천5백만 우리 민족은 속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리는 통일비전은 나눠진 두 나라가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할 나라와 민족으로 통일한국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이 되어졌을 때 모든 분야에 복음적 관점을 가진 그리고 두 문화를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들을 통일세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병기와 같은 이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쥬빌리아카데미는 이런 의미에서 '통일미리살아보기'를 통해 통일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통일이후를 준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시대적 사명을 가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임을 확신합니다.

Q '통일미리살아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입니까? (언제,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해 주세요.)

쥬빌리아카데미는 일반적으로 일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필리핀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5기까지 훈련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쥬빌리아카데미 6기가 올 봄에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올해에는 9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쥬빌리아카데미 6기에 지원 가능한 학생들은 통일한국에 비전이 있는 남.북 청년이어야 하구요, 북한 친구들일 경우 나이는 28세까지, 탈북한지 6년까지로 제한하려고합니다. 한국 청년들과 열방에 있는 청년들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인원이 최대 12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도하며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제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victorieloh@gmail.com)

쥬빌리아카데미는 남.북 청년들이 저희 가정과 함께 필리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가족 공동체위에 통일한국을 그려가는 것이지요.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보면 어느덧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된 우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쥬빌리아카데미의 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매주 한국과 열방에서 한분의 강사님이 자비량으로 오십니다. 한 주간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강의를 듣게 됩니다. 엄청난 도전과 결단이 있게 되지요. 강의주제로는 예배, 성경, 북한, 통일, 선교, 비전, 리더십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들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오전에는 영어교육을 합니다. 필리핀 영어 선생님과 일대일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자신감과 함께 한국에서 그렇게 안되었던 영어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나환자정착마을, 빈민촌, 노숙자등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쥬빌리아카데미의 과정에는 해외 비전행진이 2~3주간 있습니다. 열방의 또 다른 나라들을 남.북의 청년들이 여행을 하며 북한을 알리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쥬빌리아카데미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만남'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나누면서 통일세대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에 훈련기간 중에 다양하면서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Q 선교사님의 꿈이나 향후 목표, 계획들은 무엇인지요?

쥬빌리아카데미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통일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통일이 되면 사라져도 되는 사역이기도하구요. 하지만 결국 통일은 민족의 통일이 끝이 아니라 열방에 복음을 전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에 저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통일주인공을 키워내는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네트워크로 묶어내고 열방으로 나아갈 예수님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일 동역자로 묶어내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한 탈북청년 한명을 영적으로 입양해 대학 졸업시까지 보살피고 파송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만나 탈북청년들을 소개하고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교회에서 통일 주인공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쉽지 않은 공동체 사역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고 있는 아내 강현신 사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내의 동역 없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인걸 알기에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멋지게 커진 두 아들 예성, 우림이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통일선교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글 / 오일준 통일선교사

마르틴 루터, 튀링겐에서 빛을 발하다!

글 / 김현배목사(베를린 비전교회)

아이제나흐에서 젊은 루터의 고된 훈련

독일의 중부 튜링엔의 아담한 도시 아이제나흐(Eisenach)는 루터 당시 4,500명의 아이제나흐 인구 중 400명 정도가 수도사내지는 수녀들이어서 성직자들의 서식처(Pfaffennest)로 블리워졌다. 이곳에는 루터의 외갓집이 있었고, 루터가 청소년 학창시절을 보냈다. 14살 청소년 루터는 음악을 좋아하고 목소리가 뛰어났다. 그는 명문 귀족 집들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류트(lute)를 연주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했다. 어느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제나흐에서 가장 부유하고 상류 귀족인 우르술라 코타 (Ursula Cotta) 부인은 루터의 아름다운 노래에 감동되어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루터는 코타 부인의 사랑스런 심



▲ 루터가 청소년 시절 보냈던 게오르겐교회

김 속에 하숙생으로서 코타 하우스(Cotta Haus)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다. 광산촌 서민 출신이었던 루터는 부유하고 교양있는 귀족들의 상류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으로서 루터는 이곳에서 1498년부터 1501년 까지 살았다.

루터가 학창시절에 행복하게 살았던 이 루터하우스 (Luther haus)는 후에 아이제나흐의 목사관으로 쓰여지다가 지금은 루터의 학창시절과 그 생애, 지역교회의 역사를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다. 루터하우스는 이 도시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독일 전통가옥 (Fachwerkhaus)중 하나다. 또한 루터가 살던 집 옆의 거리 구석에는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고 그 밑에 다음의 글이 쓰여져 있다. "Und wenn ich wusste, dass morgen die Welt unterginge, wurde ich doch heute ein Apfelbaumchen pflanzen".– Martin Luther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적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구절과 루터의 이름과 문장이 적혀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말이 스피노자 (Spinoza, 1632–1677)가 한 말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루터의 말이었다. 스피노자는 루터보다 뒤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스피노자가

인용했으리라 본다. 루터의 표현이 원조인 셈이다.

또한 이 도시에는 1498년 마르틴 루터가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게오르겐 교회(Georgenkirche)가 있는데 루터는 이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소년성가대원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 당시 폰 카이저베르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에 눈을 뜬 루터는 그 이후 광명의 빛을 느끼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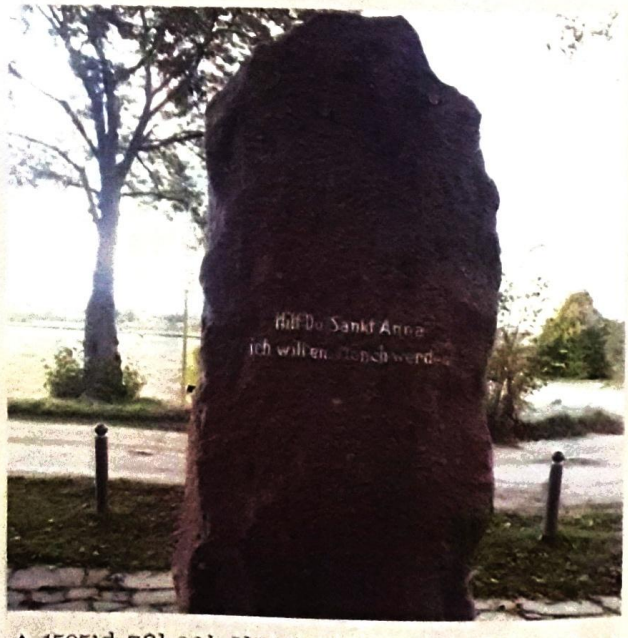
슈토테른하임-"루터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신다. 심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축을 흔드는 천둥과 번개로 루터에 나타나셨다.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원에서 법률 공부를 시작한 루터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먼 길을 걸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고 있던 루터는 폭우를 만났고, 그때 옆에 있던 친구 (후에 알렉시우스라고 불려짐)가 천둥 번개 속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천둥 번개는 그 자체로는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하지만, 루터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벼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벼락에 맞아서 죽은 한 친구의 죽음은 루터의 일생 중에서 가장 두려웠던 경험이었을 것이다. 번개가 번쩍하는 사이에 루터는 허겁지겁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루터는 그만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만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온 몸이 떨리도록 느꼈다. 그리고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다급한 심정으로 그는 성 안나를 향해 앞으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다. 당시 광부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안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것은 그가 아직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치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1505년 7월 2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 루터의 서원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환경에 의해 일어났다.



▲ 루터가 청소년 시절 살았던 코타하우스

루터는 단 한 번의 벼락 사건 때문에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다던 인생의 목표를 일순간에 수도사로 바꿔버렸다. 루터는 결코 소명감에서 비롯된 결단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



▲ 1505년 7월 2일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을 보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루터의 기념비

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슈토테른하임(Stotternheim)의 체험은 루터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 루터처럼 우리들도 생의 전화점이 되는 슈토테른하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슴 설레이고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현장인 슈토테른하임의 주위는 넓고 푸른 들판이었다. 이곳에 이 위대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1917년 높이 2m의 비석이 세워졌다.

루터의 서원 기념비에 새겨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땅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에서 이곳에 떨어진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
2. Juli. 1505 (1505년 7월 2일)
"도우소서,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튀링겐에서 빛이 발하다

빛이 밝아오는 중세 암흑기 – "종교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하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타올랐던 복음의 등불은 중세기 유럽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중세 암흑기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가 완전히 가리어져 있었고, 교회들이 참된 영적 생명과 활력이 없었다. 교회가 부패한 상태로 타락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개신교 설교자가 없던 시기이며 그 누구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오랜 동안 종교적인 불만 및 소란함이 쌓이고 쌓였다. 중세교회의 억압은 깨트려지고 닫힌 문이 열려져야 한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악행을 정화하여 철저하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종교개혁이 필요했다.



▲ 사과나무 밑에 쓰여진 루터의 말과 글

하나님은 부패한 중세시대를 마무리 하시기 위해 젊은 루터를 고된 시련을 겪게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가톨릭 신자였던 루터는 신앙 교육과 삶의 시련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다. 경건한 평민에 속한 젊은 루터는 수준 높은 교육의 결핍과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의 얼굴은 더욱 더 강인해 졌고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전투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루터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고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개혁이었다. 에르푸르트대학원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던 루터는 벼락 사건으로 인해 법관으로서의 희망을 포기했다. 그의 부친은 루터가 수도사보다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루터는 장차 법률가가 되기를 꿈꾸었던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키면서 결국 어거스틴 수도원을 향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사실상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은 슈톤테른하임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렇다. 종교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시사

세계 이슬람 경제 포럼유치와 할랄 장려를 반대하는 이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이슬람 경제포럼이나 할랄 장려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일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순수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슬람 경제는 그 자금을 활용하는데 반드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해야 한다는 독특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오일달러를 이용하여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준수를 요구함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이슬람금융을 받아들였다가 의회 부속건물 3동이 이슬람금융에 팔려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마시던 맥주도 못 마시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죠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014년 6월 이슬람 금융을 끌어들여 영국을 글로벌 허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억 파운드 상당의 이슬람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에 따라 **세 개의 화이트홀 건물들의 소유주가 중동의 사업가와 이슬람 은행으로 바뀌면서 이슬람의 샤리아 준수 의무 조항**

때문에 이제 맥주나 가벼운 주류 판매조차 금지된 것입니다.

영국 국민의 소유였던 의회 부속건물들이 이슬람 금융에 팔려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는 영국의회가 이슬람에 무릎을 꿇은 것을 의미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슬람 금융은 무슬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무슬림들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샤리아를 준수한다는 의미는 이슬람율법에 복종하겠다는 말이고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지 않고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샤리아 감시관이 상시 주둔하면서 혹은 간헐적으로 방문하면서 샤리아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슬림들보다 더 철저히 샤리아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오일 달러를 사용하여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을 세계화해서 실질적인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는 계략입니다.

샤리아 치하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IS(이슬람국가)나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의 통치하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면 알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이슬람 샤리아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므로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할랄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장려하고 이슬람금융을 홍보하여 국민들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일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는 명분으로 할랄 식품을 장려하고 이슬람 기도처를 늘려가는 것은 지렁이 살점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낚시 바늘을 삼키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중동 이슬람권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통 무슬림들은 할랄(허용된) 음식과 하람(금지된) 음식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원리주의자들은 꼼꼼히 따집니다. 또한 일반 무슬림들은 시간 맞춰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시간 맞춰 기도합니다. 할랄 식당을 장려하고 이슬람 기도처를 늘려가는 것은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리주의자들은 기도처가 없어도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

카 방향을 찾아서 어디서나 돗자리 깔고 기도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비용을 들여 원리주의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를 지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무슬림들은 항상 샤리아의 통치 하에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해외 관광하는 동안만이라도 샤리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베일을 쓰고 살던 무슬림 여성이 해외 관광을 하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화장실에 가서 다 벗어 던지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갈아입고 맥주도 마시면서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며 디스코텍에 가서 춤도 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슬림 여인들의 화젯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 할랄 음식을 먹으며 시간 맞춰 기도해야 한다면 원리주의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일반 무슬림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속은 유럽은 무슬림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들은 게토를 형성하여 집단거주지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지역을 선포하면서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무슬림들이 샤리아 자경단(Sharia Police)을 조직하여 운용함으로 경찰의 접근을 차단하여 경찰이 치안을 포기한 지역들이 스웨덴에만 55개 지역이 있으며 무슬림들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No Go Zone)이 프랑스에만 720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샤리아로 재판하는 법정이 85개소나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속았으니 우리도 속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선진국들은 속았으나 우리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용기이며 헛된 꿈일 뿐입니다.

세계 인류가 이슬람의 테러 때문에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역이 아님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IS(이슬람국가)는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시라도 유럽처럼 지하철 테러나 극장이나 식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정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이슬람금융 및 할랄 지원정책은 하루 속히 포기하는 것이 참된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글 / 이만석 선교사 (한국이란인교회)



하나님 모습 그대로

정혜레나 | 철에 우레탄 도장 | 150 X 370 X180 | 2014

정혜레나 개인전

일시 : 4월 1일~4월 30일

장소 : 춘천 아가갤러리 / 2016 부활절 기념 초대전

경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1회/ 단체전 120여회/ 한국기독미술회원/ 강원도기독미술인협회장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Community Bible Study International
Everyone in the World ··· in the Word

제15차

자기 주도적, 깊이 있는 공동체 성경공부를 소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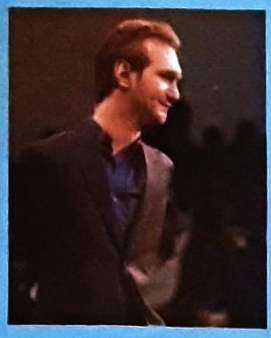
CBSI 한국 세미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제자 훈련 이후 성경공부를 고민하며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를 계획하는 목회자, 교역자,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선교사, 직장 신우회 지도자들을 우선 초대합니다.



Joni Eareckson Tada
(하반신이 마비된 수영 선수에서
세계적인 희망 사역자로 살아가는)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제 사역과 함께 하고 있는
깊이 있는 CBSI 성경공부를
추천합니다"



Nick Vujicic

"나에게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함께하는
CBSI와 같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양육되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일시

2016년 5월 30일 (월) 10:00am - 4:00pm

장소

영광교회 (담임목사 김변호)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30 (자양동 222-11) / 홈페이지 : www.gloryman.kr

오시는 길 안내 (문의 : 02-3437-1003)

대중교통 전철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자양사거리 지나 500m 직진

버스 3220번, 2412번 : 자양 초등학교 하차

등록 및 문의 (접수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등록비 1만원 (선착순 100명), 현장 및 100명 이후 등록비 2만원

참석, 세미나 교재 무료 제공 (세미나 수료자 CBSI 교재 평생 무료 제공)

전화 : 033) 261-0695 (CBSI 본부 사무실)

이메일 : koreacbsi@gmail.com / 홈페이지 : www.koreacbsi.wix.com/koreacbsi



한울섬김교회와 C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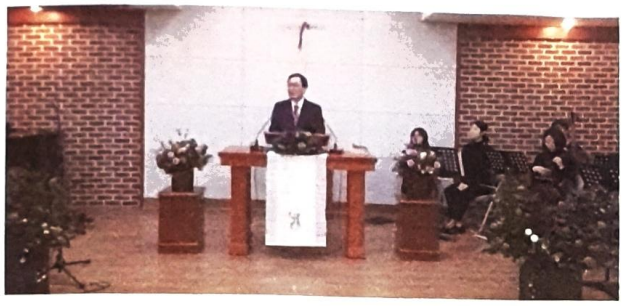
한울섬김교회가 그간 YMCA 건물을 사용하다가 석사동으로 이전하여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교회의 지나온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춘천을 방문한 것은 예예동산에서 쉼을 가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며칠 잘 머물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는 동안 내가 꿈꾸고 동경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곳 예예동산에서 접하게 되면서 여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 지체들과 2010년도에 한울섬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6년 동안 YMCA 본관 3층을 예배당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YMCA 본관 3층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교회는 마땅히 옮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회를 함께 하던 꿈이있는교회 김은선목사님이 우리의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을 보시고 이 교회 건물을 선뜻 넘겨주었습니다.

꿈이있는교회는 고은리로 이전했고,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고은리에 건축 중에 있던 교회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를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고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던 중에 꿈이있는교회 김은선목사님을 적임자라고 여기고 아무런 대가없이 물려주시고 자신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이있는교회가 고은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사용하던 건물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목사님이라 여겨집니다. 한울섬김교회는 두 분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얻게 되어 입당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전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개척을 할 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선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스무숲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의 상황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 방안으로 교회를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리 청소도 하고, 좋은 음악회, 전람회, 공연, 바자회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1층 예배당은 한섬 리사이틀 홀로 주로 음악회, 강연장, 결혼식장으로 사용됩니다. 지역 사회에 무료로 대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 갤러리 오르는 한국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서예교실이나 진학상담 강좌, 핸드 크래프트, 논술교실, 부부학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울섬김교회의 모델은 미국의 세이비어교회입니다. 세이비어교회는 교인들이 150명 정도의 작은 교회지만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인데, 한울섬김교회가 춘천에서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한울섬김교회는 CBSI라는 성경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경공부인가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CBSI(Community Bible Study International; 세계 공동체 성경공부)이라 할 수 있습니다. CBSI 사역은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성경별 성경공부입니다.

초교파적인 CBS(Community Bible Study; 커뮤니티 성경공부) 사역은 1975년 미국 워싱턴 DC 지역의 한 성경공부를 그 출발점으로 합니다. 미국 전 역에서 700개가 넘는 동아리가 매주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개별적으로 동아리를 찾아왔고, CBS에 참여한 결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미국내 CBS 사역에서 국제 사역 CBSI(Community Bible Study International; 세계 공동체 성경공부)이 탄생되었고, 서유럽, 동유럽, 북중미 및 캐리비안 지역, 남미,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 사역으로 확장되어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CBSI는 8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CBSI 교재는 논리적이고, 묵상, 강해, 귀납법적인 노하우가 종합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미국에서 42년 되었는데, 이것을 한국에 가져와 번역하고 한국교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에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고, 더 많은 교회에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SI를 하고 계신 분들의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인애권사(CBSI 섬김이)** : 저는 섬김이로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지막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이드 역할입니다. 각자 성경공부를 해 와서 서로 나누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열린 마음으로 나누고 적용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보니 성경을 더 섬세하게 알게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 쉽게 풀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세밀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습니다.

·· **이현숙권사** : 저는 퇴직한 후에 CBSI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성경공부를 했지만 심층적인 공부를 못했었는데 CBSI에서는 심층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CBSI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영적 가족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생 영어교재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좋은 질문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어린이도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교직에 있으면서 늘 교육개혁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인데, CBSI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대하면서 주관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경공부—오감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도록 디자인 되어있어 시청각 및 활동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교재의 한계를 뛰어 넘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디자인된 전인적이며 통합교육적, 성경교육 시스템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각 세대에 적절한 질문과 적용으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 **김경숙권사** : 성경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 했었는데 섬김이인 유권사님의 권면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듣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온 것을 나누면서 풍성해 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몰랐던 것을 상대방을 통해 듣게 되면서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 **박정자권사 :** 처음에는 성경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30년이라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유인애선생님의 권면으로 CBSI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공부를 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새롭습니다. 제 나이가 올 해에 77인데, 여전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 **박미경권사 :**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뭔가 내 안에서 흡족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CBSI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건성으로 알았고, 기복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차서 내 머리만 커졌는데 내 속 깊이 스며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처럼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며 그런 풍성함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CBSI를 통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미경사모 :** CBSI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토론으로 공부하게 되며, 성숙한 리더들의 티칭으로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의 나눔으로 풍성해 집니다. 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면모를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그동안 재생산 사역도 많이 했는데, 제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었는데 CBSI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의 갈급한 것이 채워지고 민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을 통해 내가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꿰어지는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배웠던 말씀이 이제 본문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 **노에녹목사 :** 지금은 교회 성장 이후의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형화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성숙해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CBSI를 하면서 목회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마다 CBSI를 통해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교회 권태환장로님(서울대 명예교수) 변우현집사님 (강원대 명예교수), 김미경 사모님과 전직 영어교사로 은퇴하신 권태완, 이현숙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CBSI 교재를 무료로 번역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권태환장로님은 고령과 파킨슨씨 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은혜가운데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CBSI를 더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알려 교회에서 접목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여는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 들이 참여하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예향

노벨수상자 솔제니친 이야기

공산통치 시대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보리스 콘펠드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의사가 배치되어 왔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한 죄수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생명,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총명해 보이는 젊은 죄수를 진단하다가 그가 장암에 걸린 것을 발견한다. 초기 장암이라 치료의 희망이 있다고 판단한 이 의사는 수용소의 수칙을 어기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그가 회복되던 날 그는 의사에게 "당신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나를 살리는가?"라고 묻는다. 의사는 조용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오."라고 대답한다. 그날 저녁 그가 예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한 간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방금 전에 당신을 살린 의사가 처형되었소." 이 처형당한 의사가 살린 청년이 바로 훗날 유명한 노벨상 수상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9:22)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장소에 있던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교회를 찾은 초신자들에게 자기가 마치 갑을관계의 갑인양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멋대로 말을 내뱉어 상처를 주는, 갑질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교회 내 모기 같은 존재다. (모기는 역사상 인간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무게 2mg의 동물이다.)

그림, 글 /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21장

우리 인간은 누구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면 좋은 곳을 가셨다 돌아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는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이고 다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의 부활사건 때문에 내세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 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합니다. 여기서 "죽으시고"는 분명한 죽음, 생명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가 되고, 동시에 슬픔과 절망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복음에서도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후의 특별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환상도 영적환각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교훈을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로는 포기한 삶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 베드로는 실망과 좌절로 옛 생활로 돌아가 어부생활을 다시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빈 무덤만 봤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낡은 배와 그물을 손질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부활의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은 불의 부패 거짓이 난무한 세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은 배신한 사람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좌절과 절망의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준비하십니다. 그곳 기후가 밤에는 춥기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배신자들을 위해 옛 생활에 돌아간 현장에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조반을 준비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력, 뱃사람의 노하우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음식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먹게 하신 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은 태어나 다 죽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태어나 성장하여 늙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가르쳐주신 사건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셨을까, 너희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누가 돌아가시면 부르는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자 ~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지금 이 생의 삶이 끝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있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시켜주시기 위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은 살아 계시기에, 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천국에 살아 계시기에 진실되게 살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나의 삶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고인이 되신 이원호목사님(소양성결교회)의 마지막 설교를 싣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착한 음식

우리나라에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다면 일본은 도쿄 우에나 공원이 있다.지금 벚 꽃이 만발한 가운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이 애니메이션의 강국답게 애니메이션 주인공 코스프레를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내 눈에는 귀신들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많이 보였다. 하긴 일본 애니메이션 내용들은 주로 요괴들이나 요괴를 때려잡는 사냥꾼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코스프레가 매년 4년마다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코스프레는 화려한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아닌 아주 서민적이며 아울러 중,고등학생이 아닌 보통 40대부터 50대 후반사이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공원이 아닌 시장 통에서 서성거리며 펼쳐진다. 이들은 민생탐방이란 이유로 진정성 없이 시장에 앞 다퉈 나와 떡볶이며 오뎅을 먹는 사진을 촬영,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서민의 주인공인 청소미화원, 소방관, 연탄배달원 등 코스프레(분장놀이)를 시작한다. (국회의원 선거)

일본에 머무는 동안 식당안의 손님들이 거의 다 혼밥을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놀랐고 또 신기한 것은 손바닥 크기 만한 1인용의 앙증한 불판에 고기를 구워먹은 모습을 보면 마치 소꿉장난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하긴 오죽했으면 '고독한 미식가' 란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까 정말 실감이 난다.



▲ 일본 불고기정식 10,000원



▲ 일본라멘 8,000원

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그것도 고기 집에서 그렇게한다는 것이 아직은 상상이 안 되며 정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이나 아니면 컵라면 등을 구입해서 편의점 구석 한 모퉁이에서 누가 나를 처량하게 볼까 허겁지겁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반찬하나하나 까지도 음식 계산을 하니 밥심으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없으면 정말 맨밥만 먹을 수 있으니 먹는 거 하나만큼은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다. 가끔 일본인들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내한하면 필자는 춘천의 대표적인 한식점 '하주골'에서 한정식을 대접한다. 그러면 이들은 상차림을 보며 다들 놀라 자빠진다. 거기다가 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상시 이렇게 먹는다.'라고 조크라도 던지면(그들은 조크가 아니지만) 다들 크게 웃으며 맛있게 식사를 한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입 간지럽고 배가 차지도 않은 비싼 음식을 그것도 거의 혼자서 며칠을 먹다보니 아주 죽을 맛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의 '제일기사식당'에서 3,500원짜리 뷔페식 백반을 스테인리스 식판에 푸짐하게 담아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점심은 지인과 함께 강원도청아래 '강릉집'에 들려 6,000원짜리 백반을 주문해서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밥그릇의 밥풀때기 까지도 싹싹 맛있게 긁어 먹었다. 이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난 후에야 이곳 식당 벽면에 적힌 낙서가 눈에 들어왔다.



▲ 제일기사식당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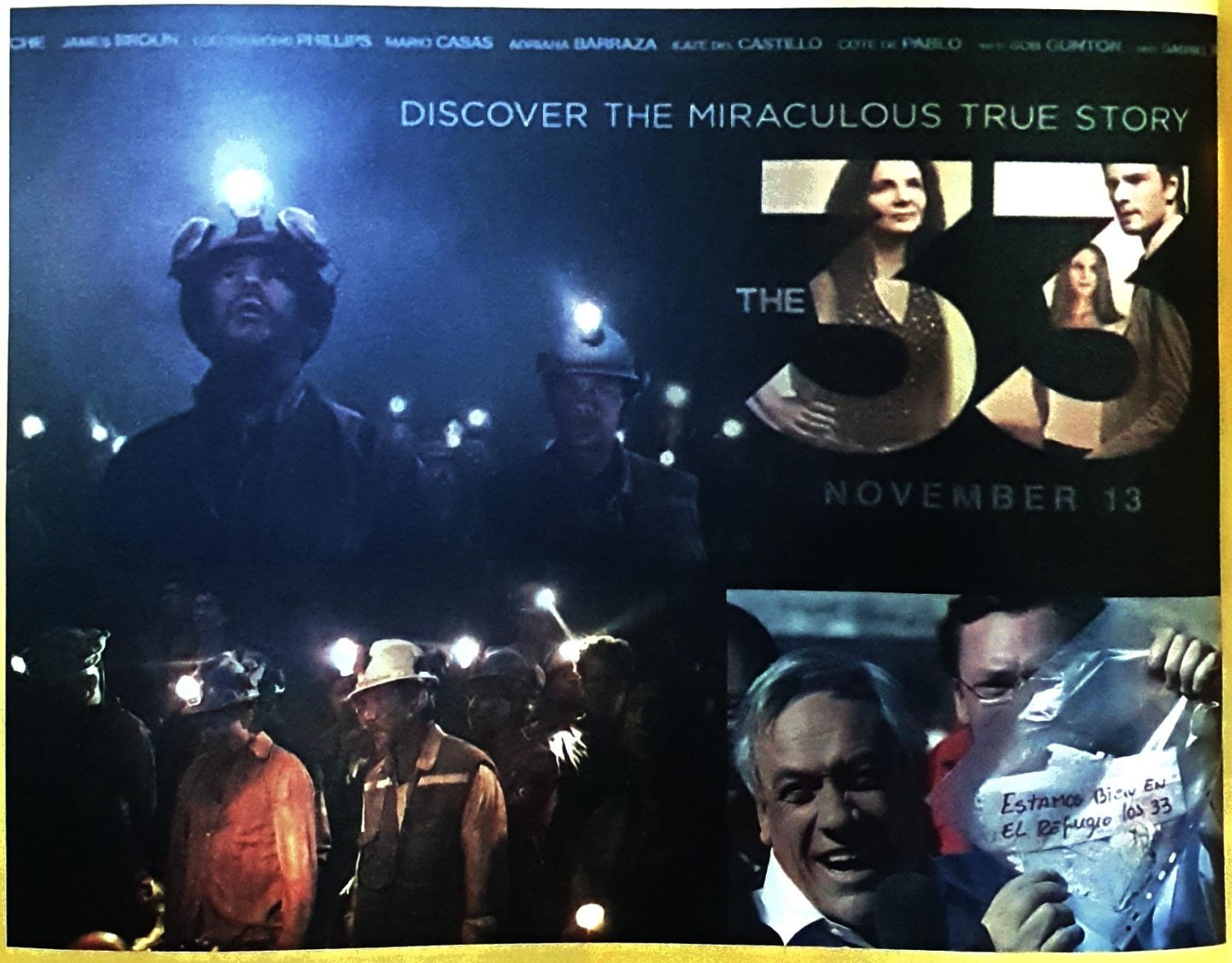


▲ 강릉집 백반 6,000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눈 마주치며 밥 한끼 챙겨 드신다는 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중에 하나일겁니다.' 오늘따라 이것 식당의 시끄러운 TV 소리며 라디오소리, 손님들의 음식 주문소리와 잡담소리가 정겹게 들리기는 처음이며 이렇게 살아있어 밥을 먹고 지내는 것, 아무런 값없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에 저절로 눈이 감겨 기도를 올리게 된다.

(필자는 지난 3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유네스코강원도협회의 부회장 자격으로일본내 동경한국학교와 MOU를 맺으러 홀로 동경을 방문 중 지난 호 국내 혼밥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대표적인 혼밥의 천국, 섬나라답게 귀신 종합 세트장인 일본에 관해 간략하게 글을 써보았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The 33

2010년 8월5일 칠레의 121년 된 산호세 코퍼 황금 광산이 붕괴되어 지하 700m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고 말았다. 이들은 69일 동안 갇힌 채 외부의 손길을 기다리며 생존투쟁을 벌이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관료(장관)의 포기를 모르는 눈물겨운(?) 노력 덕에 극적으로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 이러한 실화를 영화로 옮긴 것이 바로 이 〈33〉이다.

안토니오 반데라스, 줄리엣 비노쉬, 등 명배우들을 출연시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남미 특유의 정열적인 정서로 남성적인 분위기가 강한 이 영화를 여성이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바로 패트리시아 리건으로 2005년 21회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영화의 연출력을 보면 예전에 소개한 안젤리나 졸리 감독의 〈언브로큰〉이 생각나게 한다.

주요 포털 영화검색에서는 줄거리가 다음과 같이 압축된 형태로 간략히 소개되어 나온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 / 섭씨 32도, 습도 95%의 700m 지하에 33인 광부 매몰 → 매몰 1일째 / 8월 6일 칠레 국가비상사태 성명 발표→ 매몰 17일째 / 8월 22일 구조대가 드릴로 뚫은 구멍으로 전달된 쪽지 → 매몰 24일째 / 8월 29일 지상의 가족들과 20초간 화상통화 → 매몰 29일째 / 9월 3일 쉬람 T-130 드릴 작업 개시 → 매몰 43일째 / 9월 17일 너비 30cm 구멍 굴착 완료 → 매몰 51일째 / 9월 25일 광부들을 지상으로 옮길 구조 캡슐 '피닉스' 도착 → 매몰 65일째 / 10월 9일 캡슐이 지나갈 구조 터널 작업 완료 → 매몰 69일째 / 10월 13일 33명 전원 구조 완료.

일견 33명의 광부들이 3달 가까이 매몰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는 극한 생존 드라마로 인간승리나 휴머니즘 등의 단순한 역경 스토리로 비칠지 모르는데 사실 이 영화의 진정한 주연은 바로 세바스티안 피녜라 당시 칠레 대통령과 라우렌세 골보르네 광업부 장관이 아니었나 싶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뿐더러 지상의 가족들을 위로하랴 구조작업 계획을 수립하랴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애를 쓰고 있었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며 2년 전 세월호의 비극이 아프게 떠올렸는데, 보니까 비단 필자만의 느낌이 아닌 것이 이 영화를 본 네티즌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4월.... 참으로 우리에게는 T.S.엘리어트의 말처럼 그렇게 잔인한 달이었는지...2년 전 4월이 그랬다. 마침 부활주일을 맞이한 참이었고, 필자는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협회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타고 다니던 스쿠터의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실 TV 브라운관을 통해 연일 보도된 그 4.16은 우리에게 내내 지워지지 않는 시대의 상흔이 되었으며 300명이 넘는 어린 생명들을 대책 없이 흘러 보내야 하는 참으로 아연실색, 희대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그 세월호 사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선체가 인양되지 못하고 그 실질적인 규명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지부진한 대책이 진행중이라 갈수록 안타까움의 수심만 깊어가고 있다. 그당시 우리에게 왜 그런 대통령, 지도자, 관료가 없었나? 실로 가슴 아픈 부러움이 아닐 수 없었다...

올 4월에 개봉된다는 이 영화를 통해 허망하게 스러져 간 어린 넋들을 기리며 하루빨리 인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 /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약 복용 이야기

약을 오랫동안 먹인 경우

엄마가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은 후 조치된 약을 먹였다면 오랬 동안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간 약을 먹여야 하는 병을 치료할 때 항상 엄마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약 오래 먹이면 아가에게 나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약을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정성과 병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은 비교적 안전하게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약을 사용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약 오래 먹이면 머리가 나빠지지 않는가 입니다. 원래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라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인다고 머리가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머리를 나빠지게 만들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병원을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을 바꾸게 될 때는 반드시 사용한 처방을 받아서 다음 가는 병원의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슨 약을 써서 어떻게 치료했고 이럴 때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가 없이 임의로 병원을 옮기면 다음에 본 의사는 전에 치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가의 치료를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전에 치료에 실패했던 약을 다시 사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병은 의사가 그만 치료하자라든지 이제 좀 두고 보자는 말이 없었는데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치료의 중단이야말로 약에 대한 내성을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약을 먹일 때 주의할 것들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약을 먹이는 도중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빼지 마십시오.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약봉지에 적힌 양을 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먹여야 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 두드러기와 같은 발진이 돋거나 구토 설사 현기증이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약을 무엇에 섞어 먹이는 것이 좋은가?

약은 맹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을 먹은 후에 충분한 물을 더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음료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은 없더라도 약효가 지나치거나 떨어질 수가 있지요. 물론 아이가 약을 잘 안 먹을 경우에는 설탕물이나 아이스크림 우유나 쥬스 같은 것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약에 따라서는 우유나 쥬스 등과 같이 먹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그 지시를 지켜야 합니다.

밤에 자는 아이를 깨워서 약을 먹일 것인가?

약 중에는 시간을 꼭 지켜서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시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흔히 소아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감기나 장염 약들은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먹여야 할 만큼 시간을 꼭 지켜서 먹어야만 하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자는 아이를 깨워서 먹이기보다는 쉬게 내버려 두고 깨고 난 후에 약을 먹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식후에 먹여야만 하나?

많은 분들이 약은 반드시 식사를 한 후에 먹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상식입니다. 약은 종류에 따라서 용법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식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은 식사와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식사와의 간격을 충분히 띄워야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약은 상황에 따라서 식사와의 간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식사와의 간격이 중요할 때는 병원에서 반드시 알려주게 됩니다. 식후에 드세

요. 이 말을 듣고 받은 약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8시간 마다 약을 먹이세요. 이 말은 8시간마다 약을 드시라는 이야기이지 8시간마다 식사를 하고 약을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6시간 마다 약을 먹이라는데 식후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신 분들은 약을 어떻게 먹여야 할 것인가 의문을 한번 씩 가집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의문이 들면 약을 빼 먹거나 식사를 한번 더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처방 전에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것들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고 약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약을 먹는 것은 환자나 부모가 할 일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할 일이 있다면 집에서 환자 자신이나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약을 처방해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치료의 효과가 적을 것입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먹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미리 의사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약 또는 음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 아이. 특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이. 약을 먹을 수 없거나 특별한 알약만 먹는다던지 가루약만 먹는다던지 하는 기호를 가진 아이. 전에 약을 먹었을 때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아이. 예를 들면 감기약을 먹고 심하게 난리를 부리거나 잠을 못잔 아이.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아이. 다른 약을 처방받고 사용하고 있는 아이.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있는 아이. 한약을 복용하는 아이. 등

약을 제시간에 먹이지 못하고 잊었을 때

빼먹은 것이 생각났을 때 바로 복용을 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늦거나 간격이 줄어든다고 문제가 되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은 자기 전까지 균등하게 나누어서 먹이십시오. 하지만 다음 복용할 때 빼먹은 것이 생각났다고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먹여서는 안됩니다. 이때는 빼먹은 것은 생략하고 다음 스케쥴에 맞춥니다. 약을 먹는 중에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발진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이 곤란한 경우.

이상 엄마들이 궁금해 하는 약 복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병일 원장(우리소아과, 춘천나눔교회 장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사 55:10)

생명의 근원은 씨앗이요 그 뿌리에 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 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살아서 신진대사를 하고 있다.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들녘에서 살아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을 것 같은 혹한에도 봄이 되면 차가운 대지를 비집고 올라오는 새싹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 다년생 식물의 특징은 비록 공기 중에 노출된 줄기와 잎은 얼어 죽어 있으나 뿌리가 살아서 싹을 트인다. 특별히 일반식물은 추가적으로 빛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봄의 대지는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갖추어 시작하는 달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눈과 비는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결실하게 하며 농부와 백성에게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죽은 듯 마른 가지에서 노란개나리꽃 하얀 목련등 형용색색의 꽃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생명의 힘과 환희를 느끼게 한다. 종종 꽃샘추위와 진눈깨비 같은 눈이 내려도 새싹의 가장자리 일부만 동상을 입을 뿐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줄기와 꽃망울은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추위에 잠깐 주춤거릴 뿐이다. 봄이 주는 창조주의 메세지는 환희 기쁨이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욜 2:21~23)

우리 속담에 '싹이 노랗다'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시작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싹을 보고도 이미 그 식물의 미래 성장능력을 경험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지혜이다.

나중에 잘 성장해서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는 지 예측이 가능하다. 성경에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심지어 좋고 나쁜 나무인지를 말씀하신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8) 이는 과일나무 상태를 보고 열매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비슷한 예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마 12:33) 성경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로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음을 말한다.

글 / 오의석목사 (순복음조은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강원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⑥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BEDTC

· 강의내용 :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예배, 내적치유, 재정, 직장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 선교 등

· 훈련기간 : 4월 15일 ~ 7월 29일 (매주 목금) · 대상 : 만20세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

· 회비 : 75만원(원서접수비 2만원) 전도여행비 별도 ☎033)252-1128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⑦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 일시 :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 내용 :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⑧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 일시 : 월~금, 오후17시30분~19시30분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⑨ 강원CBS와 춘천시가 함께 하는 사랑의 장터

· 일시 : 2016년 4월 13일(수) ~ 16일(토), 오전9시~오후8시30분

· 장소 : 춘천 평화생태공원(구 캠프페이지)

· 행사의 수익금 일부는 강원CBS 사옥 건축과 춘천시 성시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기사선교회 정기예배



기사선교회 정기예배가 3월 18일(금) 오전11시에 춘천제일감리교회(원종국목사) 베드로실에서 있었다. 이 날은 군선교연합회 사무국장이신 박용배목사(불기둥교회)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기사선교회(박무영장로)에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금요일 두 번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4월 정기예배는 4월 6일 오전11시에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갖는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가 3월 11일(금) 오전7시에 온누리교회(김창환이사장)에서 있었다. 이 날은 이병철사무총장의 인도, 김창환이사장의 말씀선포와 축도로 예배를 드리고, 4월 총선과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강원도 이슬람 대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4월 특별기도회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4월 8일(금) 저녁8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의하였다.

2016 부활절 연합예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2016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27일(주일) 새벽5시에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목사) 주관으로 춘천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에서 드려졌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찬양단의 찬양인도와 수석부회장 박상칠목사(신성감리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강철주장로(창대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차성회목사(샘밭침례교회)의 "요한복음 20장 11~18절" 성경봉독에 이어 중앙감리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연합회장 차덕수목사(강원침례교회)의 인사말과 강사소개가 있었다. 이 날 강사에는 한국성결교 총회장이신 유동선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의 "부활승리"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그리고 손학균목사(석사감리교회), 김창환목사(온누리교회), 조영호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의 특별기도 인도가 있었고, 회계 김항기장로(석사감리교회)의 헌금기도,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봉헌찬양, 총무 오의석목사(순복음조은교회)의 광고 후, 권오서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의 축도로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춘천에벤에셀 청소년 집회



춘천에벤에셀 청소년 집회가 3월 26일(토) 오후2시에 주향교회에서 있었다. 춘천에벤에셀 청소년 집회는 에벤에셀 목회자 기도모임이 주관이 되어 다음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집회이다. 이번 집회 강사는 반기성목사(청주 꿈이 있는교회)였다.

2016년 부활절 계란 장병과 함께 나누기 전달식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이수형이사장)에서는 부활절 계란 전달예배가 3월 25일(금) 오전11시에 신성교회(박상칠목사)에서 있었다. 박상칠회장의 사회로 이수형이사장의 말씀선포와 합심기도로 예배를 드렸고, "2016년 부활절 계란 장병과 함께 나누기 전달식"이 있었다.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는 춘천교회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강원도내 부대에 10,000여개의 부활절 계란이 전달되었다.

친이슬람정책과 WIEF(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반대 시민운동

춘천내 시민단체들(바세운외 다수)의 친이슬람정책과 WIEF(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반대 1인 시위와 거리서명 및 시민홍보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최문순강원도지사가 3월 24일(목) 강원CBS 박윤경의 시사포커스에 출연하여 할랄타운을 추진하던 것들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은 분명하게 표했지만, 2017년 10월 평창에서 개최하려는 세계이슬람경제포럼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일방적인 철회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치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호소하였다. 최문순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긍은 하지만, 친이슬람정책과 WIEF(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철회가 분명하게 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분명한 정책 철회가 빠른시간 내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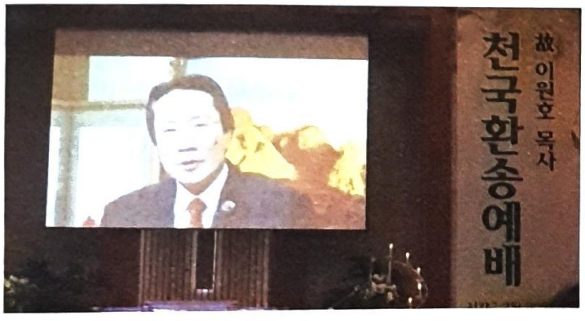
강원CBS 사옥앞 신천지 시위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가 3월 28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강원CBS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신천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프로그램으로 강력 대응한 CBS에 대한 시위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춘천에서도 대학생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공략을 하고 있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올바른 복음을 가진 춘천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전도 공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소양성결교회 이원호목사 소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대표회장과 총재를 역임한 이원호목사(춘천소양성결교회)가 부활절예배를 마치고 친구 장례예배를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30여년의 사역을 내려놓고 주의 부름을 받았다. 소양성결교회에서 열린 천국환송예배에서는 고 이원호목사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동기 친우들을 비롯해 지방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부음을 듣고 와서 급작스런 이별에 마음 아파하며 각 개인에게 각별했던 사랑을 기억하며 오열했다. 장례예식은 강원서지방 지방회장으로 드려졌고, 입관예배는 기성 부흥사회에서, 위로예배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서 집례했다. 입관예배에서 집례하셨던 김창배목사는 "영원한 집으로"란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셨기에 고 이원호목사님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라고 전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고인은 경기도 양평 느보산 기독교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

통일광장기도회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3월 28일(월) 저녁8시에 거성교회에서 있었다. 석사교 하천무대 공사관계로 이번 달 모임은 장소를 옮겨 기도회를 가졌다. 이 날 강사이신 홍요셉목사(예광교회)의 말씀선포 후, 거룩한 대한민국과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통광모임은 4월 25일(월)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갖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JESUS, Joy of Man's Desiring, Cantata BWV147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 칸타타 BWV 147 (1717년)
-J.S.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은 이별을 하고 멀리 지구 반대편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아마 느긋해졌나 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주어진 6개월 시간 동안 고국에서의 일을 잊고 지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원고독촉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서야 잊고 있었던 현실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한 꽃샘추위가 봄내의 겨울을 그립게 하고 노랗게 물든 개나리와 담장의 하얀 목련과 자목련이 흐드러지게 핀 골목길을 돌아 푸릇푸릇 돋아나는 논두렁의 냉이와 쑥을 캐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저녁 밥상에 된장찌게와 함께 갓 묻힌 봄나물로 입맛을 돋우어 주시는 때가 돌아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적도가 가까운 남미 카리브를 바라보는 베네수엘라에 와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30도를 오르내리는 고국의 반대편에서 망중한을 보내며 선교현지의 척박함을 또 다시 체험하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은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애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한 주간을 보내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토록 많은 이야기와 음악과 예술의 모티브를 제공해주신 그분의 스토리들이 여전히 들려지지 않아서 몰랐다는 이들이 없도록 전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이자 믿음의 사람, 바흐의 칸타타 147번〈 마음과 입, 그리고 행적과 삶(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에 나오는 아주 잘 알려진 합창으로 잘로모 프랑크(Salomo Franck)가 작시하고 바하가 1717년에 곡을 쓴 이 칸타타는 두 파트로 되어있고, 두 파트의 끝부분에 (6번과 10번)이 합창이 나옵니다. 가사는 훨씬 은혜롭습니다.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여〉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 예수님을 멀리 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음률이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칸타타는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잔잔하게 일상에 흐르는 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그 분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피아노는 마이라 헤스 여사의 연주와 빌헬름 켐프의 연주를 추천합니다. 그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성시 가족과 봄내에 거하시는 모든 이들께 평안을…

멀리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음악이야기였습니다. (VOL.26). 샬롬!

글 / 김금찬 선교사(JDM)

다음세대를 살리는

4/14 윈도우 목회자 세미나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세대를 4/14 윈도우에서 일으켜라!





'4/14 윈도우 운동'은 4~1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접근, 구원, 훈련, 파송의 과정을 거쳐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양육하여 선교의 주체 또는 파트너로 삼아 세계변혁을 앞당기는 것이다.

강사 : **김 남 수** 목사

- 미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총회장 역임
- 미 하나님의 성회 실행위원
- 세계 하나님의 성회(WAGF) 실행위원
- 세계 4/14 윈도우 선교운동 주창자, 대표
- 뉴욕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

- 대 상 : 목회자, 다음세대를 세우기 원하는 장로 및 평신도 리더
- 일 시 : 2016년 4월 18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 소 :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84-8, ☎ 253-2741)
-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 주 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후 원 : 춘천목회자연합회,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춘천홀리클럽, 강원CBS, CTS기독교TV영서방송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순복음춘천교회

Transform WORLD
NEW GENERATION
RAISING UP CHRIST FOLLOWERS FROM THE 4/14 WINDOW

The 24th KOREAN CHRISTIAN GRAND ART EXHIBITION

한국기독교미술인선교회

제 24 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1차 예선 작품 접수
2016년 6월 15일(수) ~ 6월 21일(화)

작품규격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
평면작품 30호 이상 100호 이내
입체작품 100 x 100 x 200cm 이내(진열대 준비)

전시기간
2016년 7월 6일(수) ~ 7월 12일(화)

전시장소
밀알미술관

출품자격
국 내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작품내용
주제는 자유롭게, 국내외 미발표된 독창적인 작품

출품료
1점 50,000원
(1인 3점이내 / 2점 80.000원 / 3점 120,000원)
계좌번호: 신한 110-454-224647 (변영혜)

접수방법
출품원서 다운로드(www.91art.kr) 후 작성 작품사진과 원서접수
웹하드 접수 www.webhard.co.kr / ID-art0691, PW-0691

1차 예선 작품 접수
2016년 6월 15일(수) ~ 6월 21일(화)

2차 본선 작품 접수
작품반입 / 장소: 밀알미술관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3)
2016년 7월 5일(화) 오전 10시 ~ 4시까지
(필히 1차 입선작과 동일한 작품반입)

심사발표
1차 심사발표: 2016년 6월 24일(금) 오전10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차 심사발표: 2016년 7월 6일(수) 오전10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시상식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3시 밀알미술관

시상내역

대 상 (1명)	상장 및 매입상금 (500만원) •대상작품은 한국미술인선교회에 귀속됩니다.
우 수 상 (2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특선, 입선 (약간명)	상장 (본상 수상자 외 1차 심사 통과자 전원)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리액자 사용시 접수 불가
전시 중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작품은 아크릴 케이스나 액자를 제작하여 제출(공예, 입체작품)

작품반출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5시 ~ 7시(시간엄수)
(상기기간 시간 이후는 그림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착불로 보냄)

특 전
본 공모전에서 총점수가 10점 이상인 작가를 초대작가로 선정
(대상 9점, 우수상 5점, 특선 3점, 입선 1점)

문 의
한국미술인선교회
010-7395-5515 (신혜정 사무국장) / 010-2225-0959 (황적환 총무)
홈페이지: www.91art.kr

주 관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주 최
한국미술인선교회

협 찬
밀알미술관 / (주)진흥문화

후 원
밀알미술관 / 황진현 미술관 / 국민일보 / 극동방송/ CTS 기독교 TV / CBS TV / CGN TV / 기독신문 / 크리스챤 연합신문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혜숙 김현철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평숙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성균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은희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순수 한명수 한정연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터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제5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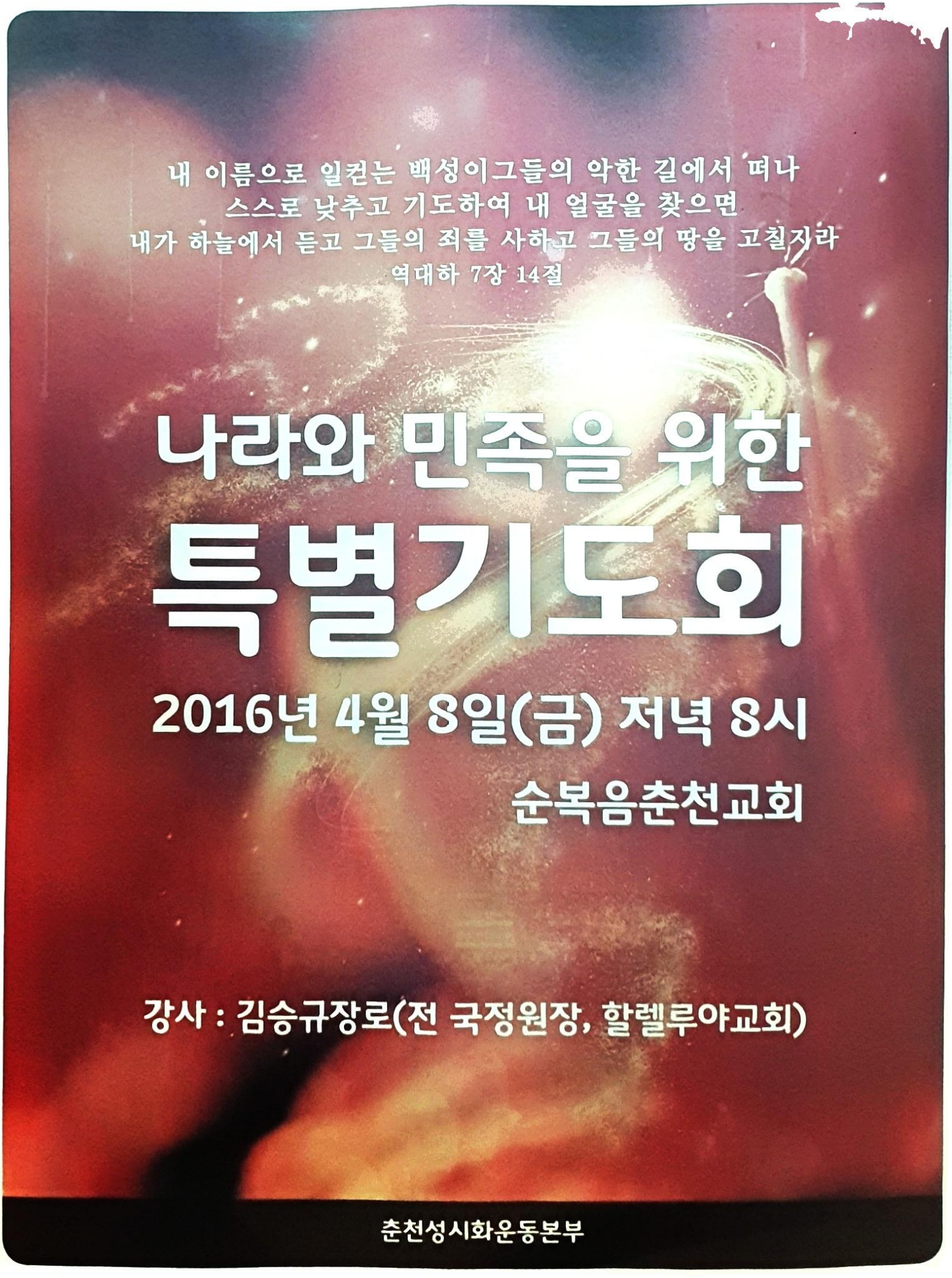
"완화의료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의 남은 삶을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인 돌봄으로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가능한 최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 28일(목) 10:00 ~ 17:00
교육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암 · 노인센터 9층 교육실
대 상 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분
모집 인원	30명 (선착순 마감)
신청 기간	2016년 2월 22일 ~ 4월 15일
교 육 비	2만원 (교재 및 식사비)
신청 문의	033.258.9060/9063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 강원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경우 위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KNUH 강원대학교병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주관 강원지역암센터 GANGWON CANCER CENTER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
2016년 4월 8일(금) 저녁 8시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 김승규장로(전 국정원장, 할렐루야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